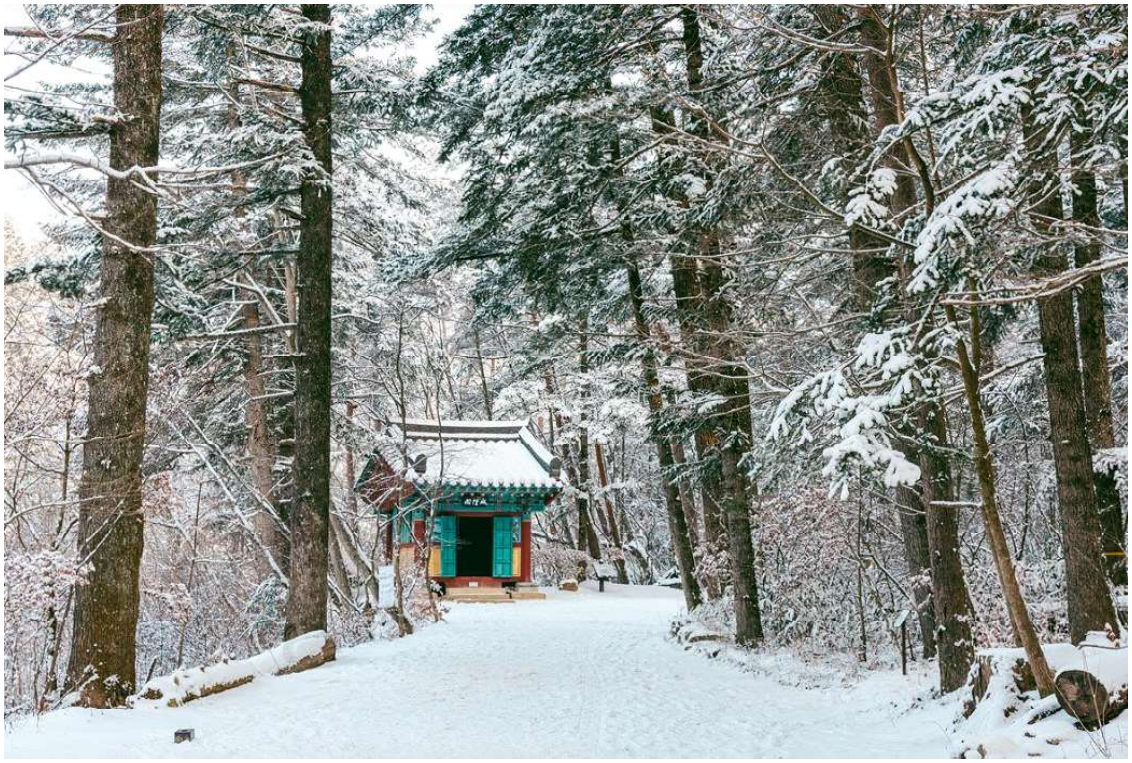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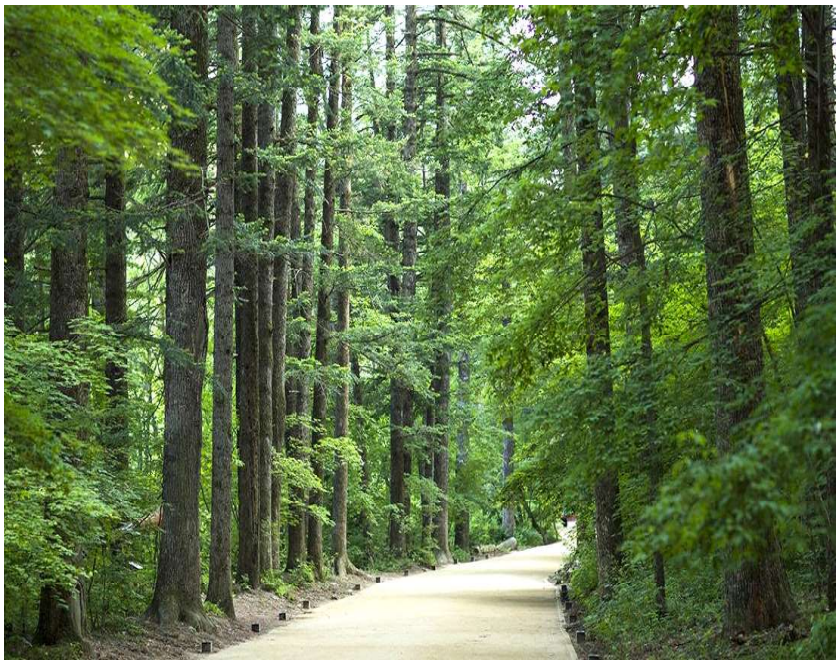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숲길(역사성9, 인지도5, 접근성10, 연결성1)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오대산 월정사의 일주문부터 금강교까지 이어지는 약 1.9km 숲길이다. 전나무 1,700여 그루가 하늘 높이 솟은 숲길은 천년고찰 월정사를 대표하는 명소이다. 이 숲길을 걸으려 월정사를 찾는 여행객도 많다. 피톤치드 향이 몸과 마음을 맑혀 하는 숲길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겨울에는 푸른 전나무 위에 하얀 눈이 내려앉아 더욱 아름답다.
이 숲길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눈내린 전나무 숲에서 도깨비(공유 분)와 신부(김고은 분)가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숲길의 시작은 1천여년 전 월정사 앞에 심은 전나무 아홉그루였다고 전한다. 전나무는 예로부터 절 주위에 흔히 심는 나무였는데, 곧고 빠르게 자라는데다 방화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숲길 끝에 자리한 월정사는 1,400년 역사의 유서깊은 고찰이다. 울창한 오대산을 배경에 둔 산사는 월정사팔각구층석탑 등 다수의 국보와 보문을 지녔다.(오대산국립공원 블로그)

월정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五臺山)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의 본사이다. 643년(선덕여왕 12)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 자장율사는 임시로 초암(草庵)을 얽어 머물면서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자 하였으나, 그가 머물던 3일 동안 음산한 날씨가 계속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유동보살(幼童菩薩)의 화신이라고 전하는 신효거사(信孝居士)가 이곳에 머물렀고, 범일(梵日)의 제자였던 두타승(頭陀僧) 신의(信義)가 자장율사가 휴식하던 곳을 찾아와서 암자를 짓고 살았다. 신의가 죽은 뒤 이 암자는 오랫동안 황폐해 있었는데, 수다사(水多寺)의 장로 유



연(有緣)이 암자를 다시 짓고 살면서 월정사의 사격(寺格)을 갖추었다.
그 뒤 1307년(충렬왕 33) 화재로 전소된 것을 이일(而一)이 중창하였고, 1833년(순조 33)에 다시 화재로 전소된 것을 1844년(헌종 10)에 영담(瀛潭) · 정암(淨庵) 등이 중건하여 내려오다가 1·4후퇴 당시 작전상의 이유로 아군에 의하여 칠불보전(七佛寶殿)을 비롯한 10여 동의 건물이 전소되었다.
1964년 탄허(呑虛)가 법당인 적광전(寂光殿)을 중창한 뒤 만화(萬和)가 꾸준히 중건하여, 현재 삼성각(三聖閣) · 대강당 · 심검당(尋劍堂) · 승가학원(僧伽學院) · 범종각 · 용금루(湧金樓) · 일주문 · 요사채 · 창고 등이 있다.
이 중 적광전은 남향으로 된 정면 5칸, 측면 4칸의 매우 큰 건물이다. 전내(殿內)에는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형식의 대불이 봉안되어 있다. 적광전에는 대개 비로자나불을 모시는 것이 통례지만 여기서는 그 통례를 깨고 석굴암 불상의 형태를 그대로 따랐다. 또한, 본존불만 모시고 협시불을 모시지 않은 것도 특이하다.
문화유산으로는 1962년 국보로 지정된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과 2017년 국보로 지정된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1997년 국보로 지정된 평창 상원사 중창권선문 등이 있으며, 월정사 육수관음상이 1976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부도 22기가 1984년 강원도 문화재자료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월정사의 보물 및 유물들을 모아놓은 전시실 보장각(寶藏閣)에는 팔각구층탑과 같은 모양의 축소판 목조탑이 있다.
그리고 대장경을 넣었던 경궤, 『금강경』 3권, 『범음집 梵音集』 2권, 『진언집 眞言集』 1권, 『보권문 普勸文』 1권, 『지장경 地藏經』 2권, 인도 불상, 인도 패엽경, 난초족자 2, 독성탱화 1폭, 관음보살변상도(觀音菩薩變相圖) 1폭, 신중탱화, 바라 1쌍, 조선시대 의상 · 기와, 고려시대 궤짝 13개, 구리거울인 무문경 · 파문경 · 쌍룡경 · 사룡경이 있고, 향낭 · 향합 · 수정사리병 · 진신사리병 · 은합 · 청동합, 청동갑옷을 쌌던 보자기, 목향 등이 소장되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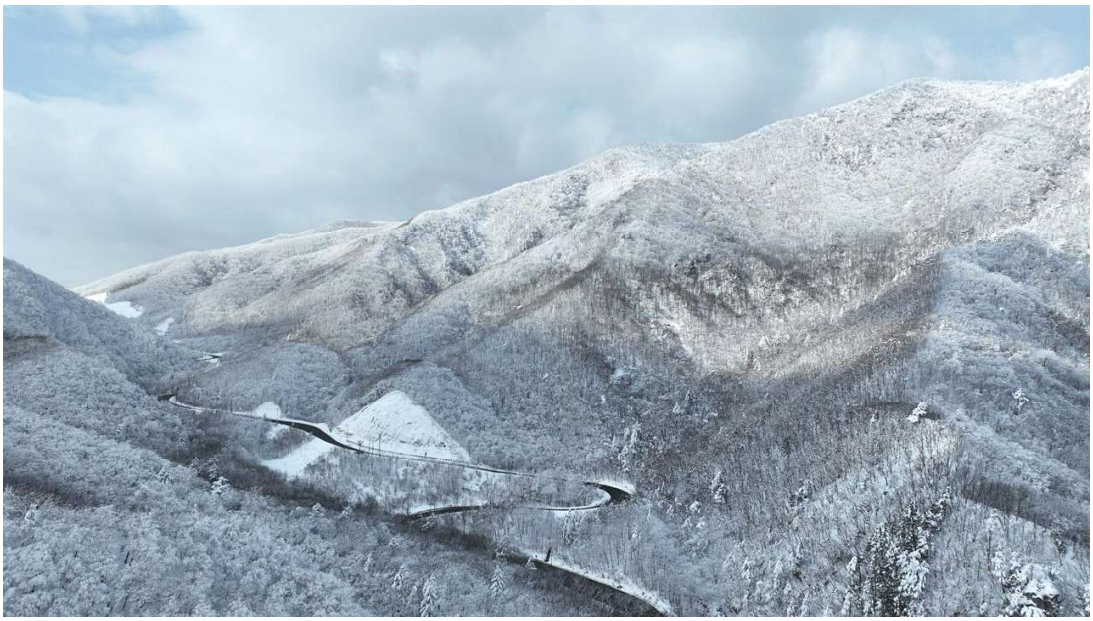



천년의 숲길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숲
자연·생태관찰로는 약 1.9Km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는 숲길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림욕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나무숲 자연관찰로
오대천
월정주차장
할아버지 전나무
성왕각
사각정
월수문
생태관찰로
생태통로
수달놀이터
월정사
비로봉, 상원사
전나무숲 자연관찰로

진고개(역사성1, 인지도9, 접근성10, 연결성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4리와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를 잇는 고개.
진고개(泥峴)는 2가지 유래가 있는데, 하나는 비만 오면 땅이 유달리 질어서 땅이 진 고개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고개가 길어서 긴 고개가 진고개로 되었다. 방언에 첫소리 'ㄱ'음이 'ㅈ'음으로 발음되는 입천장소리(구개음화)에 의해 긴 고개가 진 고개로 되었다.
진고개는 연곡면 삼산4리 솔내와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안개자니 사이에 있는 높은 고개(1,072m)로 백두대간 줄기가 지나가는 동대산과 노인봉 사이에 있다.



진고개는 6번국도가 지나가는 고개로 북쪽으로 가면 연곡면 삼산4리 송천이 되고, 남쪽으로 가면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가 된다.
진고개 정상에는 진고개 휴게소가 있고, 송천 쪽에는 송천 약수터가 있다. 휴게소에서 북쪽으로 가면 노인봉에 오르게 되고, 서쪽으로 가면 동대산에 오른다. (디지털강릉문화대전)





대관령/대관령(옛길)(역사성7, 인지도9, 접근성10, 연결성10)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과 평창군 대관령면 사이에 있는 고개.
대관령은 높이가 832m로 예로부터 고개가 험해서 사람들이 내려올 때 '대굴대굴 크게 구르는 고개'라 하여 '대굴령'에서 음을 빌려 대관령이 되었다. 또 다른 유래로는 강릉의 서쪽지역에서 강릉으로 오는 '큰 관문에 있는 고개'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대관령은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을 잇는 고개로 대관령을 경계로 동쪽으로 흐르는 남대천(南大川)은 강릉 시내를 지나 동해로 흐르고, 서쪽에는 황병산에서 발원한 횡계천(橫溪川)이 남한강으로 흘러 서해로 빠진다. 강릉에서 서쪽 대관령 너머에 있는 대관령면 일대는 능정봉, 발왕산, 곤신봉, 황병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로 고위평탄면 지형이다. 대관령의 연평균 기온은 약 6.1℃로 봄과 가을이 비교적 짧다. 여름은 서늘하며 무상기일이 짧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9월에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언다. 연강수량은 1,450㎜이다. 서늘한 기후에 적합한 고랭지 채소, 씨감자, 홉의 주산지며 목축업이 활발하다. 대관령 일대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스키를 타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대관령은 원래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조선 중종 때 강원도관찰사인 고형산(高荊山)이 산줄기를 잘라 수레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그 후, 병자호란 때 청군이 대관령을 이용하여 한양으로 진군했다고 하여 죽은 고형산의 묘를 파헤쳐 부관참시(剖棺斬屍)했다고 한다. 대관령에 자동차 도로가 생긴 것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제1기 치도사업으로 강릉과 이천 사이의 도로확장공사를 한 이래 길이 넓어졌다.
대관령은 서울과 영동지방을 관문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난다. 대관령은 강릉에서 서쪽으로



17㎞ 정도 떨어져 있다. 예전에 강릉에서 서울이나 영서로 갈 때 구산을 지나 굴면이, 원울이재, 제멩이, 반젱이, 웃반젱이를 거쳐 대관령을 넘어 다녔다.
대관령 정상 북쪽 기슭에는 산신당(山神堂)과 대관령국사성황사(大關嶺國師城隍祠)가, 남쪽에는 능정봉과 그 들머리에는 인풍비가 있다. 대관령 중간 기슭인 반젱이에는 기관이병화유혜불망비(記官李秉華遺惠不忘碑)가 있다. 이 비는 대관령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재를 털어 주막을 열었던 은혜에 감사의 뜻으로 주민들이 세웠다.(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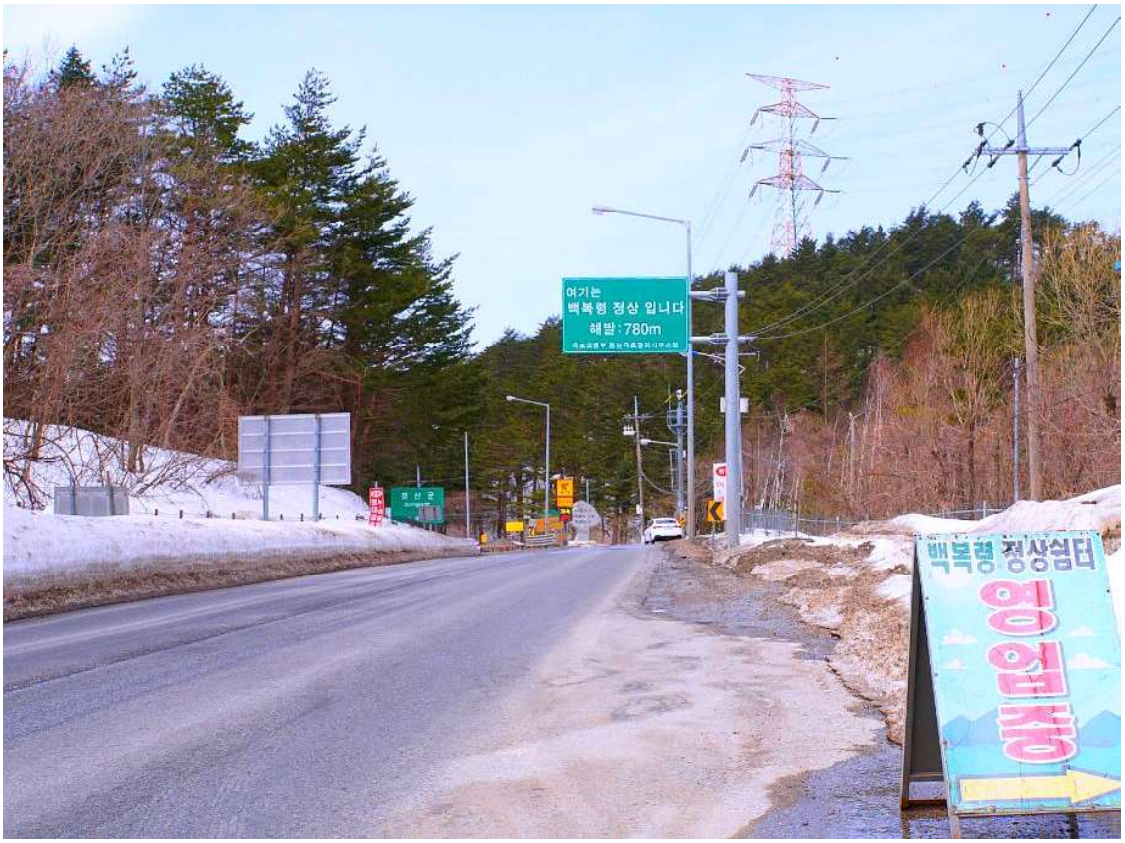







대관령 안내도
어흡리
구산리
부동
굴면동
초막골
성봉사교
대관령박물관
성산면
오봉암
오봉시원
한일목장
사원아파트
새봉
1060
대관령
7터널
825
임간학교
기맥소
삼세민원
오봉산
541.6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처
오봉리
평창군
대관령면
1084.4
대관령1교
각목다리
황계리
대관령
옛시장휴시장
대관령
6터널
기관비
982
강릉시
농촌진흥청
고령지시험장
가시머리
제궁골
신시험림
천시비
대관령
사남골
777
재왕산
841
831
왕산교
세자교
대관령
5터널
왕산면
491.4
희약골
대관령4터널
471.6

백복령(역사성1, 인지도5, 접근성10, 연결성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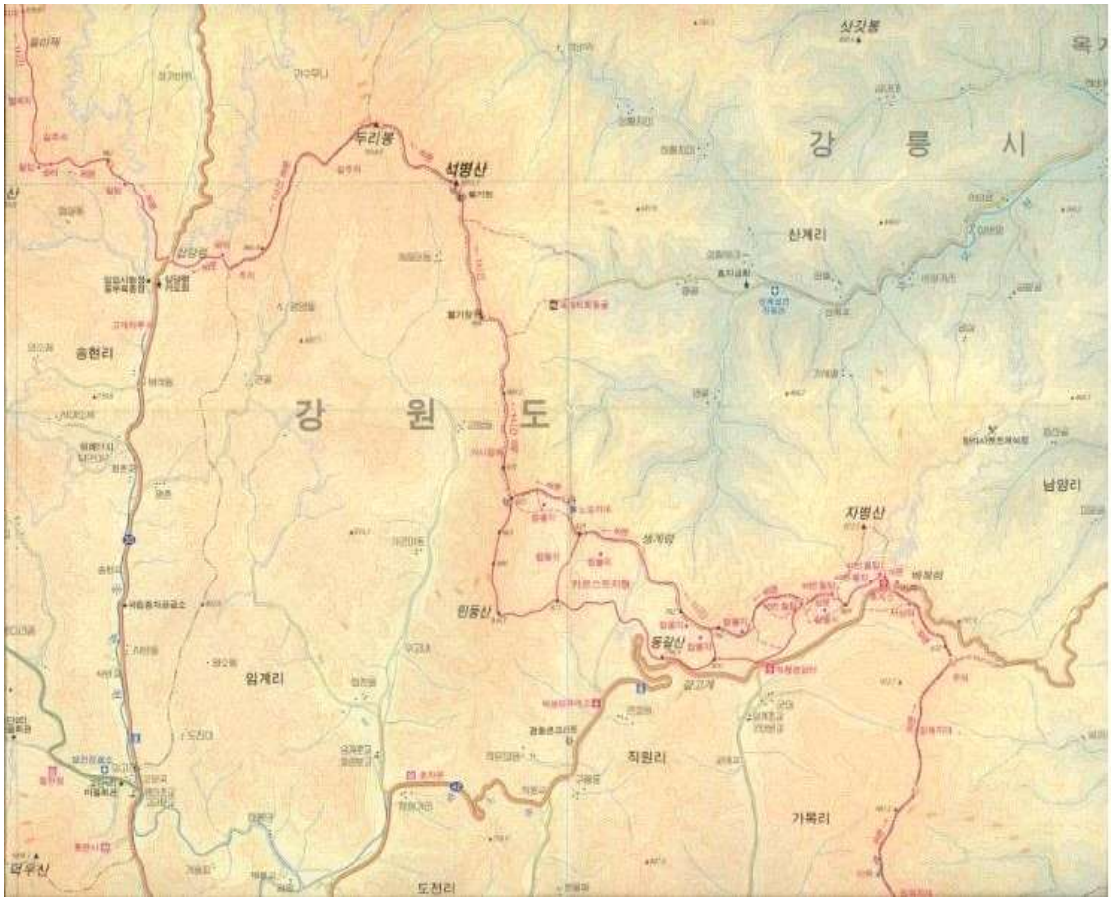
백복령(白茯嶺)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임계면, 강릉시 옥계면, 동해시 사이에 있는 백두대간의 고개이다. 높이는 해발 750m이다. 국도 제42호선이 지난다. 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위키피디아)

한편 동해시가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의 명칭을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로 변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 결과, 역사·문화 탐방로 복원사업으로 추진중인 백복령 옛길 복원사업을 이야기가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 역사와 문화·자연이 숨쉬는 힐링 로드로 조성되었다.
백복령 옛길은 옛부터 북평장터에서 구입한 소금을 임계장터 등 영서지역으로 나르기 위해 만들어진 고갯길로 사업 명칭도 백두대간 동해 소금길로 변경했다. 백복령 옛길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영동~영서를 잇던 고갯길로 소금을 이고지고 백두대간을 넘나들던 선조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다.
백두대간 동해소금 길은 서학골~원방재 구간과 이기마을~이기령 구간으로 나눠지며 이기령~이기마을 구간 총 5.12㎞는 이기령 더바지 길로 지난해 옛길 3.84㎞를 정비하고 남은 2.28㎞를 복원, 정선군 경계까지 연결하였다. 또 신흥마을~서학골 구간 17.5㎞는 지난 2016년 국가생태 탐방로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총 24억원을 들여 진입로와 탐방로 4개 코스를 복원하고 휴게·편의 시설 등을 갖춰 2018년에 완공하였다.(2017.2.3./강원도민일보)


白頭大幹
백 복 령




서학골삼거리
원방재
숲돌 체험지
상월산 경관
(산영양 서식지)
4.2km
병벌골 목포
옹막터
수력동굴
3km
2km
주막터
3km
4.2km
주화점
현위치
강릉뉴스


강 릉 시
강 원 도
석병산
두리봉
삼각봉
산계리
송현리
남양리
자병산
임계리
직원리
가목리
도전리